

'한국간호역사 사진전' 경북지역에서 열려

경북간호사회 주관 ... 간호사 자긍심 높이고 간호역사 홍보

한국간호역사 사진전이 경북 지역에서 열려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국민들에게 간호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경북간호사회(회장 윤난숙)는 창립 71주년 기념사업으로 '경북NURSE 행진 Festival'을 11월 4일 안동대 솔뫼문화관에서 개최하면서 '한국간호역사 사진전'을 함께 열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경북간호사회가 준비한 경북간호역사 사진 12점, 대한간호협회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 한국간호역사 사진 20점과 파독간호사 사진 11점 등 총 43점이 전시됐다.

경북간호사회 윤난숙 회장은 "간호역사를 잘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진전을 통해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정신과 열정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전을 관람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한국간호역사의 뿌리를 이해하게 됐고,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뿌듯하다"면서



경북간호사회는 창립 71주년을 기념해 한국간호역사 사진전을 안동대 솔뫼문화관에서 개최했다.



"귀한 사진들을 준비해 관람할 수 있게 해준 대한간호협회와 경북간호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015년 서울 세계간호대회에서 한국

간호역사 사진전을 개최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주목받았다. 이어 2016년 파독간호 50주년 특별전시회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경북간호사회 '경북간호 행진 페스티벌'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600여명 참석



경북간호사회(회장 윤난숙)는 창립 71주년을 기념해 '경북NURSE 행진 Festival'을 11월 4일 안동대 솔뫼문화관에서 개최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페스티벌을 통해 인간

장한 것은 선배님들과 회원들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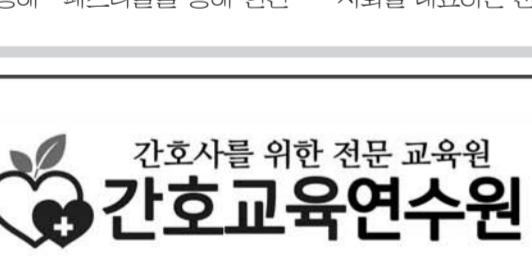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김영석 경북 영천시장이 축사를 했다.

경북간호사회가 경북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축하공연으로 가수 SG워너비와 크로스오버그룹 비스타가 무대에 올랐다.

한편 이날 페스티벌과 함께 '한국간호역사 사진전'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에 앞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간호의 역할'(김건영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 '대한민국 간호사의 Pride Up!'(신경립 전 국회의원)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투기이즈가 저글링미임을 선보였으며, 포토존이 마련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달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